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8년 1월 18일

발행인 박권수 회장

편집인 오홍열,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전화 : 02)557-7351~2

팩스 : 02)554-7359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개인택시업계에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으로 업권보호를 위해 최선

전국의 16만여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일대사건인 대통령탄핵,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한 촛불집회, 국민모두에게 혼란스러운 한해 동안 연합회는 업계의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부단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차량 구입 시부가세면제 일몰 3년(2020)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12.19. 공포되었습니다.

둘째, 택시연료 유가보조금 지급이 2017.12.31. 이후에도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강력 건의한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가 작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전기 자동차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합리한점이 발생하고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넷째, 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연합회를 비롯한 4개단체는 반형화물자동차로의 허가변경(대폐차)허용에 대하여 개선건의 및 수차례 항의방문 등을 하였던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대적재량 800kg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반형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물품적재 장치의 바닥 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 면적 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인 차량에 한정하여 영업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2.26.)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각종 현안문제 외에도 개인택시업계에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으로 업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자격유지검사제도 또는 건강검진 보고서 중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의 항목·방법 및 절차와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연합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자격유지 검사 및 건강검진 보고서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대리운전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민(지인, 동료 등)이 상호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시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순전히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여 법률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적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상운송알선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셋째, 개인택시 부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택시 부제는 법률근거가 모호하며, 부제 없이 대형택시 및 모범택시는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어도 오히려 부제로 운영을 규제 받고 있는 중형택시에 비해 사고율이 낮고, 차량고장으로 인한 문제도 없습니다. 현행 부제로 인하여 운전자는 수입금을 채우기 위하여 하루에 16~20 시간 운행으로 과로를 유발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택시의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특히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로 고객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 될 뿐만 아니라 불경기로 인한 조합원의 수입 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연료 유가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상향 등을 통한 세제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과제는 시·도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무술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酒유 하셨습니까?
술 취한 자동차는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 한해 5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마신 술 한잔에 집은 운전대는 당신을 살인자로 몰고 갑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 종합 전문공공기관 | 교통기술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라디오(TBN) 교통안전방송, 도로교통환경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국회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택시는 대중교통 역할 보완, 시민 발이 되어 주시는 노고에 감사’

택시용 LPG부탄 조세감면 규정 5년 연장안 발의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Q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A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뿌려주신 희망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택시 안에서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Q 개인택시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인택시 사업자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활동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가 있는지요?

A 제가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마치고 경기도 구리시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구리·남양주 택시 기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별내선 등 지하철이 추가로 착공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구리 시민들은 출퇴근시에 상봉·망우나 광나루·잠실까지 택시로 이동해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구 특성으로 인해 택시가 사실상 대중교통의 기능을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한 대 받는 것이 꿈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감차를 위한 정부 보조 역시 충분하지 않아 개인택시기사님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택시 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kg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되면 LPG 부탄 요금이 올라가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기사수입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LPG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부족한 제가 2017년 한 해 동안 당 정책위의장,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중요한 요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당의 대선공약들을 총괄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등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목표와 실현 방안 등을 총괄·기획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4대 복합·혁신 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위해 무술년에도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개인택시 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어떤?

A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 한분 한분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택시 안에서 더욱 소통을 하며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택시 업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경기도 구리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올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올해 구리시 관련 주요 국비 예산을 34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리시의 핵심 사업인 별내선 예산을 960억원 확보하고 구리-안성 고속도로 예산 2430억원, 구리-태릉 고속도로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구리 시민들의 이동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구리시를 위한 왕숙교 보강보수공사 10억원, 동구릉로 도로정비 예산 4억원, 이문안저수지 주민편익시설 예산 7억원, 구리 다문화여성회관 건립예산 7억원, 방범용 CCTV 확충예산 4억원 등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습니다.

(정리·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PROFILE

윤호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3선)
- 지역구 : 경기도 구리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전) 민주당통합당 사무총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
- (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INTERVIEW

국회 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국민·국가·민족 위하는 3위(爲) 정신 바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하는 것이 의정 목표’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주력할 것

Q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A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조기 대선, 밖으로는 북한 핵실험, 중국 사드문제, 일본 군사대국화 등 혼란과 갈등의 골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Q 국회의원으로써 의정 목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민(國民), 국가(國家), 민족(民族)을 위하는 3위(爲)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의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10가지를 꼭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각 분야의 불균형·불평등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국가 건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육성, 산업화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의 복지 확대, 여성과 장애인, 해직자 등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추진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농·수·축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 지방자치의 대폭 확대, 민족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개헌을 통한 4년 연임 정·부통령제 시행, 정치귀족 퇴출·국회의원 특권폐지·정치부패척결도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없는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발전전략 등을 추구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지사를 했으며 현재도 변함없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Q 지난 해 주요 의정 활동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A 농어업인, 소상공인, 여성, 아동 등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과 농어민들을 위해 △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 제외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화, 농산물 품질평가 결과 의무 고시 △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담 운영할 농어업 재해보험공단을 설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상주인구 10명 이하 도서도 국가 개발관리 대상 되도록 해 섬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 △ 관광객 등 일반인들의 비싼 뱃삯을 섬주민과 함께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 친환경 사육 권장, 방목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한해 동물 복지형 축산 인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여성, 아동을 위해 △ 간이과세 적용 금액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영세사업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낮춰 △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신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나이 18세, 2년 연장해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법안 발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Q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무안공항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위치상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해 인천공항, 영남권 김해공항과 함께 거점 공항으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산업(MRO)을 무안국제공항 유치해 활성화시켜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항공정비, 부품생산·조립, 연구소 등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수 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신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화물도 취급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초고령 사회이다 보니 직업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간편하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태양광입니다.

저는 전남 도지사 시절 태양광 발전의 월 50, 100, 150, 200만 원 수익모델을 분석했으나 그 당시의 수익성이 낮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태양광 발전 설비 가격이 30% 하락했으며, 정부도 원자력발전에서 탈피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히 햇볕이 많은 전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공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아래는 양식업을 할 수 있고 그 위에서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 있어 건설해 놓으면 농사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논농사와 비교해 보면, 농지 10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연 소득이 대략 400만 원이지만 1000평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연간 대략 6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축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리·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PROFILE

박준영 국회의원

- 국민의당
- 지역구 : 전라남도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전)전라남도 도지사 3선 (제34대·35대·36대)
- (전)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
- (전)중앙일보 뉴욕특파원, 편집국 부국장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조합 전영배 이사장

섬·관광특구 십분 활용, 개인택시 역할 늘린다

전국 최초 중앙차로 진입, 심야 공항 택시에 쿠폰 지급
행정기관 업무용 차량 대신 택시 이용, 어르신 행복 택시도 도입
‘미래 행복택시 조합 만들겠다’ 조합원계 약속



제주개인택시조합
전영배 이사장

내륙과 분리되어 있는 ‘제주도’는 ‘섬’이다. 관광 산업에 특화됐다는 것도 특징이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로드맵도 추진중이다. 제주 개인택시조합은 제주도와 내륙간 차별성을 활용해 조합원들의 수익과 복지 향상으로 연결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주도 개인택시조합을 이끌고 있는 전영배 이사장은 “개인택시 업계가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 행정의 적극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삶과 공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논리와 원칙으로 접근하니 개인택시 업계 전국 최초의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 관광 특구 제주 특성 살려 개인택시 행정 지원 극대화

제주도 개인택시들은 심야 시간대 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때 마다 2200원을 지원하는 쿠폰을 제공받는다.

심야 시간 관광객들의 운송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을 잡은 것인데 당초 오후 10시이던 적용 시간이 지난해 7월부터는 7시로 앞당겨졌다.

앞당겨진 시간 만큼 공항을 찾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수익은 늘어나게 됐다.

전영배 이사장은 “지난 해 도에서 지원받은 공항 심야 택시 지원금은 2억4200만원인데 올해는 4억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며 “한 달 동안 공항 심야 택시 지원 쿠폰을 100장 이상 모으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면서 문자와 음성인식을 통해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SD카드 구축 사업 예산도 따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억3900만원의 도 예산이 지원된다.

관광객 편의 제공 수단으로 택시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데 오는 4월중 도내 모든 개인택시에 설치되며 6억원에 달하는 소요 비용은 역시 도에서 모두 부담한다.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한 해 약 11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관광객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전영배 이사장은 “관광특구라는 제주도 특성을 감안해 관광객들의 발이 되는 개인택시의 장점을 도에 최대한 내세우고 지원을 이끌어내며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택시 무료 와이파이, 통역 기능 SD카드 설치, 공항 심야 택시 쿠폰 지원을 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은 모두 전국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행정관청 업무용 차량 대신 택시가 운송 맡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도내 37만여 차량 모두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제주도 개인택시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기 택시중 대부분은 제주도에서 운영중인데 특히 개인택시가 독보적으로 많다.

제주도내 운영중인 전기택시는 200여대 인데 이중 법인 택시는 서너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운행중이다.

제주도 전기차 전환 정책에 개인택시 업계의 참여가 높은 만큼 제주도청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제주도와 시, 읍·면·동사무소 등 모든 행정 조직의 업무용 차량을 택시가 대신하는

‘업무용 택시’ 사업이 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업무 등 출장을 다닐 때 업무용 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면서 개인택시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영배 이사장은 “관공서의 업무용 차량을 줄이면 제주도내 교통 혼잡과 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개인택시 업계는 운송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어르신 행복 택시 시범 운행에도 들어간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거주 읍면 권역 내에서 1000원이면 어디든 운송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도에서 지원한다.

버스가 담당하는 읍면 지역 노인분들의 운송 수요를 택시가 책임지도록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인 관광 행복 택시 전국 홍보 예산도 제주도 지원을 이끌어냈다.

관광 행복 택시는 시간 또는 일일 단위의 정액 운임제를 정해 바가지 없는 택시 운송 문화를 만들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데 전국적 홍보를 제주도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 택시 감차 보상으로 도에서 차량당 1억원 지원

제주도 개인택시업계가 제주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소

통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버스전용차로와 가변차로에 택시 진입이 허용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사실 전국적인 이슈로 각 시도 조합에서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건의중인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현실화됐고 그 실현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이뤄졌다.

버스만 진입할 수 있는 중앙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속도를 보장해 승객들의 편의를 높ی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제주도의 경우 적정 댓수보다 훨씬 적은 버스만 이용중이다.

“중앙차로에 진입하는 버스는 한 시간에 100대가 적정 대수로 파악되고 있는데 약 48대에 그치고 있어 52대 정도가 추가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점을 간파해 택시가 진입해도 도로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객 운송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도청에 강조했다. 버스가 적정 속도를 낼 수 있는 한계인 시간당 100대 진입이 이뤄지면 중앙차로에서 택시는 빠지겠다고도 약속한 결과 지난 해 8월부터 진입이 허용됐다”

◆ 복지·수익 향상, '전국최초' 타이틀 많아

전영배 이사장은 원칙과 논리로 행정관청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결과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의 중앙차로 진입 허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택시와 버스간 환승제도도 도입했는데 부산시의 경우 환승객 택시 이용자에게 500원을 할인해주는데 비해 제주도는 800원으로 늘려 개인택시 이용 수요를 늘리고 있다.

환승 과정의 할인액은 제주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택시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택시감차보상을 받고 있는데 제주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원들의 자가 부담 없이 제주도로부터 대당 1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전영배 이사장은 이 말은 꼭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음으로 느끼는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미래 행복 택시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영배 이사장의 약속은 이미 상당한 성과로 실현되고 있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 개인택시 업계의 역할을 발굴하고 제안해 제주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조합원들의 수익 극대화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그렇다.

그 결과 제주도 개인택시업계는 조합원들의 복지와 수익 향상을 위한 '전국 최초'라는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니 내륙 지자체와 개인택시 업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글·김신)

- ① 개인택시제주조합 전영배 이사장이 택시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승에 출연하고 있다.
- ② 전영배 이사장과 지부장, 임직원들이 대중교통공영제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 ③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제주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해 전영배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④ 제주도 원희룡 지사, 제주개인택시조합 전영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업무용 택시 운영을 위한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근하신년!

조합원께 드리는 전국 조합 이사장 신년사



부산을 비롯해 전국 14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들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전국 16만 조합원들의 건강과 행복, 번영을 기원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인 65세 이상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택시요금 인상,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등 연료비용 인하, 택시 감차 보상 현실화 등 다양한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관철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힘을 결집해 업계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실천을 약속받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조합 이사장들의 신년사 메시지이다.

(편집자 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우식 직무대행

올해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합들은 개가 귀신을 물러나게 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황금 개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해 우리 부산 조합에서는 개별가맹점 전환, 택시감차, 택시요금 인상, 전국 최초로 도입된 공공택시 환승제 시범운영 등 많은 현안들이 있었지만 조합원들께서 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택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문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 행위의 확산, LPG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 우리 업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업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의 권익보호와 발전된 미래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손병용 직무대행

존경하는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대구조합 조합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해 이루지 못한 택시 감차 사업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까지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요금인상 문제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만이 사업 추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구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촛불대통령의 탄생! 격동의 2017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모든 업계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이익창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18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택시는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고 조합원님들의 업권 신장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개인택시 업계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와 택시 카풀 영업행위 근절, 콜벤의 화물 사업용 자동차 등록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문제가 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업계 모두가 지혜를 모우고 업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견디는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업계의 불황을 극복하는 성숙된 운영과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때 문제의 해결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연속되어 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친절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며 개인택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개인택시 시·도 조합과 연합회는 개인택시 업권 보호와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유가 보조금 지급 연장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민선7기)에서도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 현실에 택시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6만4000 개인택시조합원님이 톨톨 뭉쳐 단결과 화합으로 업권을 보호하고 개인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2018년! 전국개인택시조합원 여러분 파이팅!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다는 부의 상징인 황금 개띠해를 맞이해 조합원 한분, 한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해에는 분열과 혼란의 연속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우리의 사업 역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끈기와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힘차고 찬란하게 솟아 오르는 동해의 일출처럼 우리 모두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력을 발휘 해봅시다.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바쳐 최선을 다하려 하오니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영식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조합가족 여러분! 지난 병신년 한해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문제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내 택시운행허용, 불합리한 택시증차 택시총량제 지침, 택시요금 정상화, 택시차량구입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카풀업 영업, 콜밴 유사영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각 시도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참여로 입법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업권 보호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영여건과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조합원님께 힘찬 격려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개인택시 업계의 업권 신장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 택시 운수 종사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결실이 기필코 맺어지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2018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둠을 밝히는 태양처럼 우리 개인택시 가족이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한종석 이사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정세속에서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고비용·고연료의 운송 원가와 고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택시 산업 발전 정책은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없애 주려는 희망보다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충북은 물론이고 전국 모든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가 합심, 단결해 우리 업계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해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희망이 가득한 2018년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러 조합원들께서는 큰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충남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써 2018년도에는 연합회가 더욱더 투명할 수 있도록 행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이며 2018년은 무엇보다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의 건강검진보고서를 채택해 공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카풀업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와 택시유사영업행위(콜밴·픽업트럭, 자가용유상운송, 대리운전, 렌트카불법여객영업)등 법을 무시하고 우리 업계에 무단으로 침범해 경영난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모든 악재들과 싸워 나갈것입니다.

또한 연합회장님을 선두로 각 시·도 이사장님들과 힘을 합쳐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빈틈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개인택시의 업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무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지난해를 되새기며 새해에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벽을 넘어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객운송사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택시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객을 찾는 게 아니라 승객이 개인택시를 찾도록 다 같이 노력 합시다.

무술년 한해에도 박권수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16개시도 이사장들이 힘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조합원들의 업권보호 및 권익창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조합원들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삶이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업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안팎으로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조합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개인택시의 생존권 사수와 불합리한 규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전면 개선을 추진해 고령운전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며 ▲ 감차보상 가격 현실화와 감차보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및 출연금 납부 조항 삭제 ▲ 택시요금 인상 ▲ 개인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카풀 앱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등 업계의 현안과 우리의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16만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각 지역의 지부장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이사장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과 도전을 꿈꾸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과 포항 지진 등의 재해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개인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조속히 이루어져 조합원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택시업계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분노케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적극 대처하고,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택시발전법의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는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호충 이사장

지난 한 해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안전 불감증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붕괴, 대형 화재, 교통 사고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임에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민에게 만연하여 있는 안전 불감증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접 연관되는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최우선으로 안전운행에 유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자원 마련을 위한 LPG 부가세의 면제 및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의 완화를 위해 전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들과 더불어 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담보되어 있는 택시요금은 조기에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6.1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업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전영배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아쉬움 속에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제주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여 많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제주형 행복택시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 및 가변차로제 택시 진입허용과 2018년도부터 택시 내 무료와이파이 구축, 외국어 통역기(SD카드) 구축, 노후택시 고급화(대차시 대당 150만원 지원), 감차보상금 전액 제주도에서 지원, 버스→택시 환승할인 등 22개 사업 17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야만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이용객에게 친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언론이나 시민들이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해당 관청이 우리의 지원 요청에 더욱 협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신문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www.개인택시.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배터리 안전부분 1등급 스마트폰 GAL 7

2015년 2월 ㈜이앤플러스와 함께
SK망 임대 알뜰폰 허가를 획득!
중국 심천의 휴대폰 전문 위탁 제조사와 MOU 체결

독자적 스마트폰 GAL7를 탄생
스마트폰 KCC "1등급 적합판정"
편리함은 물론 가격, 기능, 안전성, 편의성까지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스마트폰 GAL7 듀얼이 주는 편리함!
무 약정! 무 위약금! 사용기간 무!

겔7(GAL7)은
매월 42,800원(부가세 포함, 단말기 요금 별도) 사용!
4G LTE 속도에 데이터 11GB 제공, 추가 2GB 제공
기간 3사 대비 30% 통신비 절감!

사용 요금의 100% POINT 적립!
업계 최초 사용 요금 돌려받는다.

화제의 정치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불법 유상 운송 알선 막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카풀 표방 스마트 앱 증가, 택시 생존권 위협

출·퇴근 허용 시간 명확하게 규정, 부당 운송 막아야

최근 택시 과잉 공급과 택시 유사 운송 수단의 발전,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택시 산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 수송 인원이 많은 시민의 발이지만 택시운전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카풀을 표방한 불법 유상 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 갑)이 카풀을 표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카풀의 본래 취지가 지켜지도록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카풀 공유

현행 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카풀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카풀 앱 업체들은 출퇴근 시간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카풀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중이다.

실제로 최근에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세어'에 이르기까지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세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출근시간)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퇴근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정해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

민들에게 알선을 하고 있다.

운전자 1인 기준 운송 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중 약 20%는 카풀업체 수수료의 부당 운송수입으로 취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거대 자본을 적극 활용해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은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카풀의 본래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개정 발의 법안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돼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과 승객의 안전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택시 환승 할인 지원 법안도 발의

한편 이찬열 의원은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중고차·택시도 버스·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

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게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돼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만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5년 경과 기한을 3년으로 규제를 완화 주문했다.

지난해 5월 22일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택시도 버스,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환승제도가 도입되면 집 또는 직장에서 버스, 지하철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택시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택시 이용자에 대한



▲ 이찬열 의원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기획부장 김도길)

[신규 아이템]

"GAL7"

휴대폰의 반란 안전성에 기능 더하다.

이폰, 갤럭시 스마트폰 1등급 적합판정, "듀얼 유심 넘버 알뜰폰의 혁명"

알뜰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이폰이 뜨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2010년 알뜰폰 사업 본격화 후 매년 두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폰보다 통신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엔 글로벌 메이저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까지 겸비돼 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더블유디스크로드에서 판매중인 갤럭시(GAL7)이 알뜰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다.)

휴대전화 알뜰폰 시장의 새로운 강자 (주)이앤플러스 HP:(010)4389-0074 (010)5297-1588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ongHyup Bank 3.1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은행

개인택시 사장님을 우대하는 전용 대출상품!

NH개인택시 우대대출



대출대상	<p>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고 개인택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25세 이상 만75세 미만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택시 사장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권 제한사항이 없는 고객 <p>※단, 과태료로 인한 압류, 택시 구입관련 근저당, 택시영업 관련 LPG충전소 근저당 설정(근저당 설정금액이 3백만원 이하이고, 근저당권자가 충전소 사업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은 소유권 제한 사항으로 보지 아니합니다.</p>
대출한도	<p>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의 보증한도 이내에서 최대 4천만원</p> <p>※당·타행 신용대출금액 한도에서 미차감</p>
상환방식	<p>분할상환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p>
대출금리	<p>최저 연 3.88%</p> <p>(2017.09.04. 현재, 당행 기준금리(6개월 변동) 연 1.41%,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5년(분할상환), 신청금액 4천만원, 우대금리 1.30%p 적용 시)</p> <p>※당행 기준금리: 금리 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 금융상품마켓-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p>
우대금리	<p>최고 1.30%p ※상품설명서 참조</p> <p>(2017.09.04. 현재, 신용카드이용(3개월) 300만원 이상 0.10%p, 외국환(3개월)5천불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5건 이상 0.10%p, 단기변동금리(6개월이하) 0.09%p, 보증서담보대출(90% 이상) 0.29%p, 당행 여신 장기거래 고객(3년 이내 거래가 있는 경우) 0.09%p, 하나로카드고객 0.09%p, 카드매출대금입금 카드사수 3개 이상 0.20%p, 사업기간 3년 이상 0.09%p, 신용등급(1~3등급)우대 0.19%p 등)</p> <p>※고객별 실제 우대금리는 대출영업점에서 상담하여 확인</p>
준비서류	<p>운전면허증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3일 이내 발급 분)</p>
부대비용	<p>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1.00% × (대출기간-경과일수) / 대출기간</p> <p>※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대출기간으로 봄</p>

■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해약금 및 대출 금액에 따른 인자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담보인 지원 시 최고 연15%의 연체이자 발생됩니다. ■ 이 안내문은 고객 여러분께 대출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내용을 간략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 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개발부서/저적부서] 마케팅전략부 ■ **준법감시인실명명 2017-2058 (2017.09.13~2018.09.30)**

개인택시 전담영업점 지정

[서울강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잠실월드지점 02-3431-4651 / 강남지부 일원동지점 02-2016-1403~4 / 강동지부 길동지점 02-478-8102 / 송파지부 장지동지점 02-449-6181 [서울중앙] 서대문지부 가좌지점 02-361-7322 / 용마지부 합정동지점 02-2188-1863 / 은평지부 녹번지점 02-3418-3092 [서울강북] 강북지부 수유지점 02-986-9013 / 노원지부 마들역지점 02-932-3011 / 도봉지부 쌍문역지점 02-903-8100 / 동부지부 전농동지점 02-2247-7821 / 성북지부 보문동지점 02-927-0325 / 중랑지부 중화동지점 02-439-0915 / 중양지부 전농동지점 02-2247-7821 [서울강서] 강서지부 공항동지점 02-2664-2713 / 관악지부 봉천동지점 02-887-0092 / 남서지부 구로지점 02-838-6094 / 양천지부 신월동지점 02-2694-2731 / 영등지부 신길동지점 02-841-2253 [부산] 부산지부 사직동지점 051-502-9901 / 동부지부 총렬지점 051-524-2700 / 서부지부 대신동지점 051-255-9111 / 남부지부 문현동지점 051-637-8801 / 북부지부 주례동지점 051-317-6400 [대구] 대구 범물지점 053-760-8654 [인천] 인천가좌지점 032-578-1453 [광주] 광주영일부 062-946-2653 / 광산구 첨단지점 062-971-8251 / 남구 주월동지점 062-675-5204 / 동구 금남로지점 062-222-8192 / 서구 생촌동지점 062-381-0250 / 북구 일곡동지점 062-572-8801 [대전] 대전영일본부 042-220-0926 [울산] 울산영일부 052-258-4402 [세종] 조치원지점 044-865-2156 [경기] 울전지점 031-278-3671 [강원] 춘천시 강남동지점 033-250-1751 / 원주시 북원지점 033-738-6342 / 강릉시 강릉동부지점 033-610-0287 / 동해시 북평지점 033-530-8628 / 태백시 태백지부 033-550-0225 / 속초시 속초지부 033-630-1809 / 삼척시 삼척지부 033-570-2004 / 홍천군 홍천군지부 033-430-3530 / 횡성군 횡성군지부 033-340-1613 / 영월군 영월군지부 033-370-1910 / 평창군 평창군지부 033-330-1222 / 정선군 서북지점 033-590-2603 / 철원군 철원군지부 033-450-3703 / 화천군 화천군지부 033-440-1409 / 양구군 양구군지부 033-482-8541 / 인제군 인제군지부 033-460-0604 / 고성군 고성군지부 033-630-1854 / 양양군 양양군지부 033-670-1413 [충북] 충북조항 및 청주시지부 청주물류센터지점 043-288-5201 / 괴산군지부 괴산군지부 043-833-0321 / 단양군지부 단양군지부 043-422-2581 / 보은군지부 보은군지부 043-542-2401 / 영동군지부 영동군지부 043-744-8845 / 옥천군지부 옥천군지부 043-732-1171 / 음성군지부 음성군지부 043-872-4101 / 제천시지부 제천시지부 043-644-3612 / 증평군지부 증평군지부 043-836-1701 / 진천군지부 진천군지부 043-533-2131 / 충주지부 충주지부 043-841-4114 [충남] 충남개인택시조합 충남영일본부 041-339-5528 / 천안 천안지부 041-561-3612 / 공주 공주시지부 041-855-1107 / 보령 보령지부 041-934-6142 / 아산 아산시지부 041-544-2140 / 논산 논산시지부 041-735-2041 / 서산 서산시지부 041-660-0555 / 금산 금산군지부 041-750-8206 / 부여 부여군지부 041-836-2332 / 서천 서천군지부 041-953-0022 / 청양 청양군지부 041-943-2282 / 홍성 홍성군지부 041-620-2214 / 예산 예산군지부 041-332-2131 / 태안 태안군지부 041-670-0299 / 당진 당진지부 041-350-6240 [전북] 전주완주시군지부 063-259-8230~2 [전남] 전남영일부 061-289-7821 / 순천파견 순천시지부 061-720-9806 [경북] 경북개인택시조합 및 경산시부 경산시지부 053-811-0872 / 경주지부 경주시지부 054-742-0022 / 구미지부 구미시지부 054-481-7312 / 김천지부 김천시지부 054-432-6702 / 문경지부 문경시지부 054-552-3122 / 상주시부 상주시지부 054-537-2200 / 안동지부 안동시지부 054-854-3312 / 영주시부 영주시지부 054-635-3022 / 영천지부 영천시지부 054-338-4122 / 포항지부 포항시지부 054-247-2942 / 고령지부 고령군지부 054-950-5600 / 군위지부 군위군지부 054-383-2882 / 봉화지부 봉화군지부 054-672-1712 / 성주지부 성주군지부 054-933-2192 / 영덕지부 영덕군지부 054-734-2162 / 영양지부 영양군지부 054-683-2182 / 예천지부 예천군지부 054-654-3101 / 울릉지부 울릉군지부 054-791-2082 / 울진지부 울진군지부 054-782-1652 / 의성지부 의성군지부 054-834-2142 / 청도지부 청도군지부 054-373-3012 / 청송지부 청송군지부 054-872-7612 / 칠곡지부 칠곡군지부 054-971-2123 [경남] 경남영일부 055-284-9527 [제주] 노형지점 064-720-4512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충남조합 아산시 지부

선배 조합원 위로하고

조언듣는 모임, 올해로 5년째

100원 택시 아이디어 원조, 이낙연 총리도 언급

네이버 밴드로 소통 활성화, 충전소 소액주주도 확대



충남조합 아산시 지부
김관웅 지부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00원 택시'를 언급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나 벽지 거주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만 받고 운송하는 택시를 말한다.

나머지 운송 차액은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일종의 사회 복지 정책인데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벤치마킹해서 관할 지자체에 보급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가 벤치마킹했다는 100원 택시 원조가 바로 충남 아산 개인택시 업계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관웅 아산시 지부장은 "대중교통 근접이 어려운 지역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하고 개인택시 사업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전국 최초로 아산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지자체와 손잡고 도입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외곽지역 거주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스쿨택시', 고령자들을 일정 권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1000원 택시' 등으로 진화하며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가 소외 계층의 다리가 되어 주는 한편 수익도 창출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니 아산 개인택시 업계의 발상의 전환이 대한민국 택시 업계 활동 반경 크기를 넓히고 있는 셈이다.

◆ 선배 조합원 모시고 송년 모임, 올해로 5회째

아산시 지부는 조합원 복지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송년모임을 열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았다.

행사 명칭에서도 세심함이 느껴진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라고 표현하며 자격 유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려 하는 65세 이상 조합원들을 아산 지부는 '선배 조합원'으로 호칭하며 초대하고 있다.

행사 명칭도 '자문회의 겸 송년회'로 부른다.

김관웅 지부장은 "젊은 조합원들도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월의 이치인데 개인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선배 사업자들을 위로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힘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올해 송년 모임의 행사의 크기도 키워 1, 2부로 나눠 지역 가수를 초대하고 여흥을 즐기는 시간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조합원간 소통이 업계 이익 지키는 힘

올해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지부에서 4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체득한 것이 '조합원간 소통의 중요성'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황 속에서 조합원간 교류와 소통이 개인택시 업계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김관웅 지부장이 가장 열의를 쏟는 소액주주단은 동아리 활성화다.

아산지부안에는 축구를 비롯해 산악회, 마라톤, 헬스, 스케이트 등 다양한 종목의

공식, 비공식 동호회가 활동중이다.

김관웅 지부장이 취임하면서 '배드민턴 동아리'도 창설했고 5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중이다.

이에 대해 김관웅 지부장은 "장시간 앉아서 운행해야 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업무 특성상 건강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운동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개인택시업계의 단합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웅 지부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교류수단은 휴대폰을 활용한 소통 창구인 '네이버 밴드'이다.

아산지부 개인택시 조합원 수가 640여명으로 현재 '아산개인택시지부'라는 명칭의 밴드에 가입한 회원만 277명에 달한다.

밴드에는 조합원들의 각종 애경사를 포함해 동아리 활동, 지부 소식, 개인택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언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지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김관웅 지부장은 소개했다.

◆ 충전소에 조합원 참여 늘리기 위해 소액 주주 활성화

아산지부는 자체 소유 LPG충전소를 운

영하고 있는데 조합원 모두의 복지와 부대 수익 증진 수단이 되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4년, 약 80여명의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땅을 매입하고 충전소를 건축하며 운영을 시작했는데 조합원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소액주주 확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전소는 조합원들의 회사이고 조합원 이용이 많을 수록 수익이 커져 배당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가 그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임 아산지부장님이 충전소 대표를 맡으면서 대주주 조합원들의 지분 일부를 매입해 주주를 희망하는 약 60여명의 조합원들이 추가로 참여했고 아산지부 역시 특별회계로 지분을 매입한 충전소 주주"라고 김관웅 지부장은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택시 등 대형 포털 사업자가 택시 콜 사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초기에는 택시 사업자나 택시 이용객 모두에게 유리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시장을 독점하고 나서는 그들이 책정한 일방적인 이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며 아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힘을 뭉쳐 지역 콜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김관웅 지부장은 밝혔다.

(글·김신)



▲ 선배 조합원 송년 행사 모습.

동아리 탐방

제주조합 칠십리 축구 동호회

‘잔디구장에 숙박, 관광 가능한 제주도서 축구합시다!’

개인택시 축구동호회 전국 대회 추진, 전북·충남과는 이미 교류중
2시간 뛰고 달리는 60대 운전자 보면 ‘고령’ 호칭 사라질 것



▲ 이이모 서귀포 지부장.

사실 축구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팀워크를 다지기에 용이한 운동은 없다.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잔디가 깔려 있고 규격화된 운동장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축구도 고급 스포츠가 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 모여라’하며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제주조합 서귀포 지부 이이모 지부장은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 축구 동아리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실은 이미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

◆ 앉아서 일하는 택시, 축구만한 운동 없다

제주조합 6개 지부에는 총 6개 축구 동아리가 활동중이다.

지부 마다 축구 동아리 한 개씩은 있는 셈이다.

그중 서귀포 칠십리 축구 동호회 역사는 25년이 넘는다.

이이모 현 서귀포지부장이 지난 1992년 창립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약 4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며 교류 경기 등을 포함해 매 주 2, 3회 축구 경기를 할 정도

로 무한 축구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칠십리 축구 동호회장을 맡다 현재는 고문으로 물러난 이이모 서귀포 지부장은 앉아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업무 특성상 축구 만큼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 없다고 자랑한다.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어울려 땀을 흘리고 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이만한 운동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이모 지부장은 전국 단위 개인택시 사업자 축구 대회를 만들어 교류하자고 깃발을 들었다.

◆ 전북·충남과 교류 경기 20년째

사실 개인택시사업자 축구 동아리의 전국화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제주도 서귀포 칠십리 동호회의 제안으로 전국 군산 개인택시 축구 동호회와 교류 경기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충남 지역 조합원들과 정기적인 행사를 열고 있다.

격년제로 돌아 가며 상호 방문하는 형태인데 벌써 20년째이다.

올해는 전북과 충남 개인택시 축구 동호회원들이 서귀포를 방문해 친선 경기를 가졌고 내년에는 군산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공식 대회가 아닌 친선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개인택시 축구 동호회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면 틈틈이 갈고 닦아 온 실력의 자용을 겨루는 공식적인 이벤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이모 지부장은 계획하고 있다.

◆ 50세 이상 조합원이 70% 넘어

축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라는 호칭이 얼마나 모순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이모 지부장은 말한다.

축구 동호회 조합원중 최고령자인 67세 회원을 비롯해 60세 이상만 10명이 넘는다.



▲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교류대회 모습.

이이모 지부장은 58세이며 동호회에 참여중인 조합원중 50세 이상이 70%에 달한다.

내륙에서는 70~80대 고령자들도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중이란다.

이에 대해 이이모 지부장은 “축구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 2시간 정도 뛰고 달려야 한다. 엄청난 체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으로 서귀포 칠십리 동호회원들은 매 주 2~3회 활동을 갖는데 젊은 조합원들과 운동장을 누비며 공을 차는 60세가 넘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을 직접 본다면 정부도 더 이상 고령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이모 지부장은 제주도가 전국 개인택시 축구 동호회들이 모여 친선 대회를 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한다.

겨울철에도 날씨가 온화하고 웬만한 축구장은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대부분 깔려 있으며 경기를 겸해 관광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도 전국 규모 대회 개최를 주문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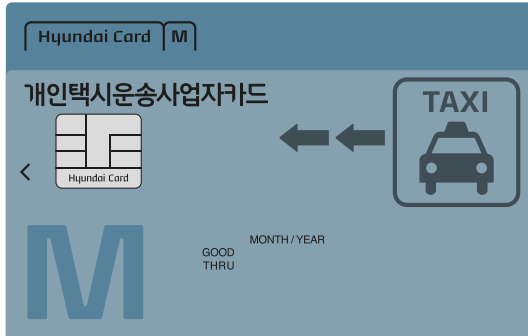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허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전국에서 모인 60세를 훌쩍 넘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운전자들이 운동장을 가로 질러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정부나 사회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바꿔게 될 것”이라며 이이모 지부장은 현재 충남, 전북과 교류하는 제한적인 활동이 전국적으로 넓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김신)

현대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용카드

LPG 면세 및 보조금 지원



현대카드M-개인택시(유류)
국내전용 연회비 없음

주요 혜택

LPG 충전 시
리터당 239.85원
면세 및 보조금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종합건강검진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여 개
건강검진센터



국내 가맹점에서
0.5% M포인트
적립



유의사항

- LPG 면세 및 보조금 혜택은 일 4회 한도, 부제일 이용 건 및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제외
- LPG 리터 측정은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기준이며,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종합건강검진은 온라인메드 홈페이지(www.onlinemed.co.kr) > 파트너 고객 예약 또는 상담센터(1566-7775) 통해 예약 후 이용
- 1회 이용금액 천원 단위 미만은 M포인트 적립 제외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자세한 내용은 카드 발급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7.9%의 연체이자율 적용
(회원별, 연체 기간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2017-C1b-11329호(2017.10.17~2018.10.16)

우리조합 NEWS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역 균등 배차 시스템 도입 건의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8. 1. 1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조합이 차별 없이 균등배차 될 수 있도록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택시 승차장 및 대기 주차장을 사전 점검하여 조합원들이 불편 없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였으며, 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공사 근무자가 없는 심야 시간대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렸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CCTV확인



을 통한 불법 호객행위 단속을 약속하였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균등배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것이며, 개인택시 영업환경개선이 공항 고객 서비스 개선 일환임을 인지하고 향후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택시 총량제 보완지침 재개정 요청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2017년 8월 21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보완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총량을 재산정하여 기존 지역별 택시총량 산정결과 감차 확정지역이 증차지역으로, 기 증차 예정 지역은 추가 증차로 전환되어 일부 지역의 택시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본 조합 임원진은 11월 2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택시총량제 보완지침을 추가 보완하여 재·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 중이다.
 청하였다.

〈경기조합 제공〉

전국 규모 개인택시 테니스 대회 구미서 성료

17회 개인택시 테니스연합회장기에 전국 20개팀 참여 금배부 우승에 울산·은배부는 충남 차지, 올해는 전주서 개최

테니스를 사랑하는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모여 자웅(雌雄)을 겨뤘는데 참가 인원만 무려 300여 명에 달했다.

경북 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 17회 전국개인택시 테니스연합회장기 대회'가 지난해 10월 25일, 경북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에서 열린 것.

이번 대회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제주, 경북 등 12개 광역시도에서 20개팀이 참여했다.

참가 인원만 300여 명에 달했고 대회가 열린 남유진 구미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개인택시경북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이 격려사를 할 정도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이 격려금을 전달해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가 수여하는 등 전국 대회 규모의 면모를 보였다.

이번 대회는 금배부 우승을 울산이 차

지했고 준우승은 전북, 공동 3위는 서울과 경북이 가져갔다.

은배부는 충남이 우승했고 준우승에 강원, 경북과 경기가 각각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해 문춘성 연합회장고 후원식 대회장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님의 큰 관심으로 대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전국개인택시 회원들의 많은 참여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개인택시 테니스연합회는 5대 회장으로 전국연합회 문춘성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문춘성 신임 회장은 2018년부터 임기를 맡게 됐고 '제 18회 전국개인택시 테니스연합회장기 대회'도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다.

다음은 2018년 전국 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 임원명단이다.



▲ 남유진 구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돌식 경북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사진 왼쪽)이 후원식 대회장에게 박권수 연합회장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 5대 회장에 선임된 문춘성 전국연합회 전무이사가 취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번호	직위	성명	지역
1	연합회장	문춘성	전북
2	명예고문	엄익선	부산
3	명예고문	이정만	울산
4	고문	이종철	충북
5	고문	이이상	인천
6	자문위원	구정희	서울
7	수석부회장	이재선	부산
8	부회장	이용우	경기
9	부회장	홍원식	경북
10	부회장	이광림	서울
11	사무국장	김덕겸	충남
12	경기이사	맹원영	인천
13	운영위원	각지역연합회장, 사무국장	

전북조합 겨울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조합(이사장 박상익)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빙판 및 눈길 대형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인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한 교통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캠페인 종료후 버스터미널, 역 등

의 택시 승강장을 찾아 대기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비타씨 정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관계 기관에 개선 건의했다.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은 "겨울철에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어 폭설 등 이상기후로 교통사고율이 높고 사상자수도 다른 계절에 비해 100건당 16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조합 더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과 간담회

전북조합(이사장 박상익)에서는 지난 10월 26일 14개시군 단위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합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상익 이사장은 전국 개인택시 공동 현안문제인 ▲택시자격유지검사 폐지 또는 완화 ▲개인택시 양수요건 자격완화 ▲택시요금 전국 일원화 ▲통학택시 및 마을택시 확대에 대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위원장

회의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여 주도록 건의 하였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과 또는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전북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택시대수가 8,900대로 인구수에 비하여 택시가 많아 감차에 따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 하겠다."고 화답했다.

{ 2017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인택시 차량부가가치세 일몰기간 3년 연장)

연합회는 2016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정당, 정부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 차량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을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 채택, 정부 및 의원입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0인) (2016.7.1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인) (2016.10.2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0인) (2017.8.28)	○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10인) (2017.8.4)	○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대표발의	주요 내용
정부안 (2017.9.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세법개정안(2017. 8. 2)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17.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2017. 11. 30),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 회의 통과('17. 12. 1)하여 공포('17. 12. 19)하였다.

연합회는 여·야 국회의원, 정부 등에 개인택시 차량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일시	주요내용
2017.1.24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안) 요청건에 대한 의견제출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일시	주요내용
2017.7.3	○ 개인택시 공급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조항 연장 건의 -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건의 -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원회 여·야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2017.7.25	○ 개인택시 공급차량용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 건의 -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2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적극 대응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17. 2. 3)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중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이 입법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개인택시 재산권 말살과 정부의 노령자 고용대책 역행, 노령자에 대한 가혹한 규제정책, 불합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어 개인택시를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연합회는 시·도조합의 견조회 수렴, 연합회 총회를 거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대처 할 수 있는 “건강검진 시행 건의(안)” 국토교통부에 건의(17. 9. 14) 하였다. 따라서 택시자격유지검사 대상자(65세 이상)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검사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의료검사는 건강검진항목, 비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 2. 3)

-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 자격유지검사 : 65세 이상 → 3년마다, 70세 이상 → 매년

연합회는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국회, 정부 등과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는 등 다각적으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일정	주요 내용
2017.1.13	○ 연합회 및 시·도조합과 국토교통부 간담회 -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반대
2017.3.15	○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 (1안)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즉시 철회 - (2안) 개인택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 하도록 시·도조합에 위탁
2017.4.27	○ 교통신문 광고 게재 개인택시 말살하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제 도입 즉각 철회!!
2017.9.14	○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건강검진 시행 건의(안) 제출 - 자격유지검사대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또는 건강검진 보고서 중 선택권 부여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기관의 의료검사 도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기관의 의료검사 도입
- 의료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가용(카풀) 유상운송행위 근절 적극 대응

2015년 국내에서 우버가 불법유상운송행위로 퇴출 되었음에도 유사 앱인 ‘플러스’, ‘럭시’, ‘우버세어’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을 근거를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 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예상된다.

○ 현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출근시간),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퇴근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알선하여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50

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이 중 약 20%는 카풀업체 수수료로 부당 운송수입을 취하고 있다.

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노사4단체는 성명서, 언론 홍보, 건의서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사항
2016.6.20	○ 앱을 이용한 택시유사 여객알선행위 단속 및 규제 개선 건의 - 택시 노·사 단체 공동명의로 건의
2017.9.4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 개선 건의
2017.10.31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 개선 건의 - 택시 노·사 단체 공동명의로 건의
2017.11.9	○ 성명서 언론에 배포 - 공유경제 미명하에 택시산업 고사시키는 자가용 카풀업체 불법영업 행위 즉각 중단 - 택시 노·사 단체 공동명의로
2017.11.13 / 14/15/17	○ 시민안전에 위협하고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 불법 카풀 ” 운행!!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교통신문 광고(5회)
2017.11.14	○ 자가용 불법유상 영업행위 근절위한 성명서 제출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게 택시 노·사 단체 공동명의로
2017.11.21	○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행위 근절 촉구 결의대회 - 서울 광장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를 비롯하여 법인택시, 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 연맹 등 400여 명 참석
2017.12.1	○ 자가용 불법유상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 제출 - 청와대 정무수석(한병도), 국무총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30인)
2017.12.26	○ 택시업계 현대자동차 렉시 관련 항의방문 및 간담회 - 업계요구조건 : 렉시 카풀서비스 철회 돼야 향후 협조 가능하다. - 현대 측 답변 : 현대본사에 투자비 철회 요청

자가용 불법유상행위 근절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0인) (2017.11.23)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소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0인) (2017.12.15)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여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

4 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대응

국토교통부는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 12. 26) 하였다.

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 업계 4단체 공동명의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및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개선 건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주요 내용
2017.11.2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총 적재화물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3인 도입 - 화물자동차가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강화 - 화물자동차가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과징금 상향 건의

2017.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개선 건의 - 승차정원 5인승 차량(코란도 스포츠)으로 대·폐차 허용 전면 금지 -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3인 도입 - 화물자동차가 화물의 기준을 위반하여 3회에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전자격을 취소하며, 해당차량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3진 아웃제 도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의 형벌규정 개정(2천 만 원 이하 → 2천 만 원 이하 5 백 만 원 이상) 건의
--------------	---

5 승합대형택시 전국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 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 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 12. 6) 하였다.

연합회는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지역 확대와 승합, 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에 대하여 현행유지로 연합회 의견을 제출하였다.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

국토교통부는 경유·LPG의 세율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8. 12. 31까지 1년 연장하고, 행정상 제재 등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을 공포(17. 12. 21)하였다.

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등 정부와 여·야 당 대표에게 강력 건의(17. 10. 11)하였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 규제 완화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7. 6. 2)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은 종전의 배기량, 외부 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의 범위를 중형 택시운송사업으로 확대(17. 6. 2)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을 명시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2018년 주요 사업 계획 }

1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개인택시 업권보호

-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적극대응
 - 자격유지 검사제도와 건강검진 보고서 중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건강검진 항목은 기본검사로 최소화 하고, 모든 진료기관 허용
 - 건강검진 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65세 이상은 3년 마다, 70세 이상은 2년 마다 검진
 - 건강검진 및 자격유지 검사 비용 정부 및 지자체 전액 지원
 - 자격유지검사 및 건강 검진 보고서 불합격자에 대하여 대리운전 허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적극 추진
 - 자격 유지검사 및 건강검진 검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협동조합 택시, 택시 임대제 도입에 적극 대응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적극 추진

- 택시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이 시행 중 양도·양수 금지조항 폐지
-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규정 삭제
-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원은 7인 이내로 한정
-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자가용 등 불법유상운송 근절대책 강구
 - 카풀제도 관련 자가용 불법유상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 불법 렌터카 및 대리운전 불법 행위 근절
- 승합형 대형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전국확대 시행
 - 대형택시는 (13인승 이하) 전국 실시 적극 추진(군지역 포함)
 - ※ 특별시·광역시는 2016. 2. 23 시행
-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 택시차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차령 연장 범위 고시 시행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 추진
 - 일반 자가용 운전경력 과거 6년 동안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 자동차 보험가입·기간을 통한 운전경력 인정
 -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통한 운전경력 증명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행
- 택시승차대설치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제한거리 완화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 허용
 -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 택시총량제 수립기준 관련 적극대응
 - 기존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른 증차지역은 기존 지침 우선 적용
 - 택시총량제 산정방법 개선
 - 택시 감차 보상계획 및 실태 파악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사업자의 자가용 대리운전 참여 추진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하여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2 세제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구입 차량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2~3년)
 - 유가보조금 197.97/ℓ이 2018. 12. 31까지 한시적 지원이 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추진
 - 할당관세 영세율(기본관세 3%→0%)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P)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국외 LPG공급 독점과 국내수요과점(6개 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수급체계 다변화
 -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
 - 기타 언론 광고, 정유사 및 공급업체방문 등 대책 활동 강화
-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지속 추진
 - 법원이 주관하는 LPG손해배상 입증관련 감정평가연구용역 자료 지원 및 재판부 판결 모니터링
 -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 협력체제 구축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지원 마련
 - 감차 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 기대
- 사업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대책 추진

- 자동차세의 단계적 세율 인상에 따른 시행유보 및 인상을 축소 추진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상향 및 운송업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 추진**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2천400만원미만)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게 상향조정 추진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운송업은 20%이나 10%로 하향 조정하여 조세부담 감소추진
-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점 개선 및 행정제재 완화**
 -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받기 전 “사전자진신고제도” 도입 추진
-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제작 추진 등**
 - 택시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카드결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제작업체 등 사업성 정밀검토
- **친환경차량 도입**
 -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 등 차량구입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적극 추진
- **여신금융협회 IC카드단말기 지원대상 확대 건의**
 - 여신금융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IC카드단말기를 택시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건의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 **해외 택시제도 및 산업시찰**
 - 선진외국의 택시제도 및 산업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택시운송업의 발전방안 모색
- **사회복지사업**
 - 노인정,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
 - 자가용 요일제 운행 적극 동참
 - 사무실 에너지 절약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

3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서비스 향상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의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한 주기적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에서 개인택시 제외 추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적극대응**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보장 의무대상에서 개인택시 제외
 -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대상차량에서 개인택시는 유예하도록 건의
- **모든 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적극 대처**
 -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까지 좌석안전띠 착용은 개인택시의 특성상 불가하므로 하위법령 개정 시 택시는 제외 추진
- **보수교육 완화 개선**
 - 보수교육 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추진
- **전 종사자 3년 1회 교육**
- **사고 및 벌점자 익년 1회 교육**
- **교통안전교육 강화 적극 저지**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반대활동 강화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운전 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
 - 특별검사대상자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승차거부 행위 금지

4 홍보 강화 및 행사 내실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마스크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

◎세입

항 목	2018년 예산
세 입	2,027,869,800
○ 회비	1,676,869,800
○ 이월금	350,000,000
○ 기타수입	1,000,000

◎세출

항 목	2018년 예산
세 출	2,027,869,800
1. 사무비	1,058,503,100
○ 인건비	687,260,600
· 급료	353,180,500
· 상여금	210,825,900
· 수당	123,254,200
○ 물건비	371,242,500
· 여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42,720,000
· 수용비	22,300,000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 시설관리유지비	46,200,000
· 복리후생비	230,944,500
2. 사업비	781,570,000
○ 물건비	234,920,000
· 여비	50,900,000
· 수용비	128,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공비	289,200,0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63,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27,450,000
· 회의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상비	5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담금	28,600,000
○ 분담금	28,600,000
· 단체회비분담금	3,600,000
· 신고포상금 분담금	25,000,000
5. 적립금	80,000,000
○ 적립금	80,000,000
· 퇴직적립금	80,000,000
6. 예비비	54,196,700
○ 예비비	54,196,700
· 예비비	54,196,700



데스크칼럼

정부는 택시업계 규제강화 보다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강력 단속해야!

택시업계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 카풀 앱서비스를 이용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등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갈수록 지능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 업권을 침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과연 정부는 택시업계에 언제까지 규제만을 강화하고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지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참으로 우려를 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택시업계 발전에 저해되는 원인이 많으나 오늘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카풀 앱과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버와 렉시 등 카풀 앱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상심을 깊게 하고 있다. 우버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우버와 큰 차이가 없는 유사 앱인 '플러스', '렉시'를 비롯해 최근에는 '우버세어'에 이르기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의 근거를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최근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져 또 다시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카풀서비스'형식의 스마트폰 앱들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면허제와 등록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내 운수사업에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버젓이 유상운송 영업을 하여 여객운송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 앱인 '플러스'와 '렉시'는 일반인 드라이버를 고용(보험증, 차량등록증, 면허증 제출 및 차량점검)하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일반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태워 매월 30~50만원, 많게는 100만 원의 부당 운송수입을 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운송수입에서 세금 4.4%와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드라이버의 수입으로 현재 일일 평균 결제건수가 약 2000~300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 카풀 앱 서비스! 여객운송질서 문란!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민(지인, 동료 등)이 상호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시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일반인과 운수종사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순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법률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불법 유상 운송영업으로 변질됨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한 국내 여객운송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허울뿐인 '공유경제'로 택시업계 활성화를 저해 하고 있다.

일일 15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는 전국의 약 30만 명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궈온 택시시장(서울 개인 택시)의 경우, 2016년도 기준 약 1조7000억 원 을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몇몇 거대 자본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그 시장을 빼앗으려는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무분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테두리를 국가의 성장 저해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스마트 폰 앱서비스는 불법 운송행위를 조장하여 범법자를 양산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카풀업체들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운전자 신원 확인도 어려워 잠재적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카풀앱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차종, 차량번호, 이름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과거 범죄경력을 알 수 없어 주 이용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잠재적 범죄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내 보험사 역시 이와 같은 카풀서비

스를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간주하여 교통사고 상해 또는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거 (종합)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이에 일부 업체는 자체적인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 화물차를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20여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6밴형화물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택시업계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바가지요금, 합승, 택시를 빙자한 표시, 미터기 설치 등 극심한 운송질서 혼란을 겪었다. 특히 외국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여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요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다.

일명 픽업트럭으로 일컬어지는 무쏘스포트, 액티언스포트, 코란도스포트, 다코타 등 해당화물자동차가 50여대 등록되어 여객운송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위 형태의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호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이므로, 이를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밴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승차정원 5인승 일반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의 허가변경을(대·폐차)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근본 목적인 화물운송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비사업용 자동차로 자가 인증 되어 여객운송위주의 승차정원 5인승화물자동차(코란도 스포츠 등)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적 취지에 위배되어 여객업종과 화물업종간의 마찰로 사회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5인승 화물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본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불

법 여객운송행위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승차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한 입법취지를 볼 때 코란도 스포츠 등 5인승 자동차들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외국인, 외래객 등에 대한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대명사로 악명을 받고 있는 6밴형 화물자동차를 5인승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변경 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승차정원 3인승으로 규제하여온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택시업계는 절대 수용 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서 폭발적인 민원 증가가 예상된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의 기준 유명무실화로 여객운송사업이 괴멸 된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의 기준(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 존재하여 화물운송질서가 유지되어 왔으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5인승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할 경우 화물기준은 무의미 하다. 따라서 5인승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이 만연할 것은 명약관화하며 택시 등 여객운송업종의 몰락과 여객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3회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하며, 해당차량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3진 아웃제 도입과 적재총량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3인 이하로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의 형벌규정(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상향 조정을 건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승차정원 5인승 차량으로 대·폐차 허용을 전면 금지 하고 시·도지사에게 밴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일반화물자동차로 허가변경(대·폐차) 불허 조치를 시달 하여 여객과 화물 업종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기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업권을 보호하고 업종간 다툼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택시업계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매의 눈처럼 냉정하게 주시하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



혁신적인 스타일 개선

완전히 달라진 외장과 고급감이 개선된 내장 디자인



캐스캐이딩 그릴 & 세로형 LED DRL 편의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

신규 편의사양 확대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을 고려한 편의사양 확대



8인치 내비게이션(폰 커넥티비티) 듀얼 풀오토 에어컨(공기 청정 모드)

최고 연비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

新 변속기 적용으로 중형택시 최고 연비 확보



2세대 6단 자동변속기 혁신적인 차체강성